한양대학교

답안지 (인문계열)

수 험 번 호	성 명	페 이 지
		1/1

언쟁과 대화를 가르는 기준은 '이해'이다.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존재해야 상호작용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진다. (가)와 (나) 모두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기 '동정심'과 '대화 역량'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서술하지만, 그 핵심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다. (가)에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정심을 제시한다. (나)는 평화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으로 대화를 제시하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두 제시문 모두 인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선택한다.

(다)의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 모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에게 분노한다. 이들은 타인의 상황이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화를 진행하며, 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름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타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타인의 이해를 도우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대화는 생산적이기 쉽다. 상호 간의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역량은 사회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량이 없다면,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지닌 타인만을 수용할 것이다. 또한, 타인 중 의견이 같은 사람과만 대화하는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편향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인간이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며,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고가 불가능하기에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반면, 타인과의 다름을 수용하는 개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따라서 편향적인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현 사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대두되며,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수많은 타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